

전남도, 중동 최초 남도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 개장

UAE 두바이 한인마켓 판매 시작
쌀·배즙음료·멸치 등 21개 품목
세계 13개국 32개 판매장 운영

남도의 농수산물식품이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시장에 진출했다.

전남도는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1004Gourmet) 슈퍼마켓에 지난 15일(현지시간) 남도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을 개장해 남도 명품 브랜드쌀과 김, 배즙음료, 마른멸치 등의 판매를 시작했다고 21일 밝혔다.

천사고메는 두바이에 3개 지점, 아부다비에 1개 지점을 갖춘 중동 최대 규모의 한인마켓이다. 이곳 상설 매장에서 곡성의 브랜드 쌀 잠자리가 노닐던 쌀, 완도의 새우표김을 포함해 여수의 마른 멸치까지



중동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천사고메 슈퍼마켓에 개장한 '남도 농수산물식품 상설매장'에서 관계자들이 남도 농수산물식품을 소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21개 남도 제품이 판매되고 있다.

이번 천사고메 두바이점 개장은 중동지역 최초로 이뤄진 상설매장으로 아랍에미리트 최대 온라인 플랫폼인 아마존UAE와 배달 플랫폼 인스타샵, 탈라밧 등에서도 제품 등록과 판매가 시작된다.

지금까지 중동의 문턱을 두드렸던 농수산물 식품은 많았지만 '할랄 푸드(이슬람 허용 식품)' 통관 장벽을 넘지 못해 안정적인 시장 진입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전남 두바이 상설매장 개장으로 중동의 까다로운 제품 성분 기준에 맞춘 남도 제품을 선보일 수 있게 돼 활발한 수출 확대도 기대된다.

지난 15일 열린 개장식 행사에 참석한 전용필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 두바이 소장은 "전남의 다양한 농수산물이 중동의 물류 허브인 두바이에 소개돼 무

엇보다 기쁘다"며 "전남 제품이 중동을 넘어 아프리카까지 확산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동철 천사고메 회장은 "우수한 전남 제품이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할랄 인증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하다"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전남의 농수산물식품이 중동의 단골 메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지속적인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지난 6일 말레이시아 페타링자야에도 전남 해외 상설판매장을 개장했다.

전남도는 현재 총 13개국에서 32개소 상설판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설 판매장을 지역별 오프라인 거점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전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전수조사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전 4시께 집중호우로 완도읍 군내지구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빗물이 유입됐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빠르게 물막이판을 설치했음에도 차량 11대가 침수됐다.

이에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700여 단지의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하는 한편, 물막이판이 설치된 17

개 시군 103개 단지에 대해 도·시군 합동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수조사에서는 물막이판 및 배수펌프 작동 여부, 비상발전기 관리상태(작동 및 점검일자·연료)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건축물설비기준규칙' 제17조의2에 따르면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지구에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관리 역량강화

광주시는 지난 18일 광주시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에서 지역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 환경기술인, 시·자치구 공무원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규모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사물인터넷 측정기기(IoT) 부착이 의무화하면서 사업자들이 새로운 제도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은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제도와 관리방법, 설치비용 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진행됐다.

IoT 부착 제도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가동여부를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관리시스템(그린링크)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원격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사업장은 방지시설 등에 전력계, 차압

계 등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해 관리시스템 내 운영 정보를 통해 배출과 방지시설의 이상 여부, 관련부품 교체주기 파악 등 자율적인 환경관리가 가능하다.

적용 대상은 연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의 합계가 10t 미만인 4·5종 사업장의 배출시설 및 배출시설과 연결된 방지시설이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일인 2022년 5월3일 기준으로 이후 신설된 신규 사업장은 오는 6월 말까지, 개정일 이전 기존 사업장은 2025년 6월 말까지의 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

광주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소규모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비용의 90%(국비 50%, 시비 40%)까지 지원해주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을 통해 236개소에 총 17억원을 지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해양수산과학원, 해양수산 '신지식인' 모집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수산 분야 새로운 지식, 기술 등을 개발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공유해 수산업·어촌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2024년 해양수산 분야 신지식인 신청자를 오는 8월5일까지 모집한다.

선발 분야는 △유통·가공 △해양양식 △내수면양식 △어구·어법 △어촌관광(레저포함) △어촌 6차 산업 △기타 등 7개 분야다.

신청자는 신청서, 관련 증빙자료 등을 전남해양수산과학원(관할 지원)에 제출하면 되며, 전남해양수산과학원은 후보자 신청서를 검토·보완하고 현지 조사를 거

쳐 적격자를 발굴,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추천한다.

국립수산물과학원은 이를 토대로 8월에 1차로 추천자 현지조사와 평가를 거쳐 80점 이상인 최종 심사 대상자를 해양수산부에 추천하면 해수부는 10월 해양수산 신지식인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한다. 해양수산 신지식인으로 선정되면 10월 말 해양수산 인재육성의 날 행사에서 신지식 인증서와 포상을 받고 향후 신규 어업인 대상으로 멘토링, 강연, 실습장 지원 등 활동을 하면서 수산인력 양성과 어촌 발전에 기여하게 된다.

오지현 기자



대구경북 신공항 건립 부지 방문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경북 군위군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부지를 찾아 김진열 군위군수 등과 조감도를 보며 건립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관련기사 2면

광주시 제공

광주시, '월요대화' 시민 소통창구 역할 '톡톡'

지난 2년간 38차례·1100여명 만나
강 시장, 시민과 정책방향 등 모색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장 주재 대화 창구인 '월요대화'를 통해 지난 2년간 38차례, 시민 1100여명을 만났다. 월요대화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주요 창구가 돼 민선 8기 시민과 정책을 잇는 가교로 자리잡았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강 시장이 도입한 월요대화는 청년·문화·경제·환경 등 각계각층의 시민과 함께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2022년 9월 월요대화의 첫 시작은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후 청년 부채·구직활동지원 등 청년정책, 광주 기후행동, 관광·축제 활성화, 이스포츠 육성 등 다양한 주제로 열렸다.

민선 8기 대표 성과로 손꼽히는 '광주

다음 통합돌봄'도 시민, 전문가, 전담팀(TF) 위원 등이 참여한 7번째 월요대화에서 논의됐다.

광주다음 통합돌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돌봄 시행 전 준비단계를 점검하고 구축과정의 어려운 점, 앞으로 해결이 필요한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후 정책 방향 설정, 조직개편 등에 반영돼 통합돌봄팀이 신설됐다.

'이주민·선주민 상생, 지방소멸 극복'에 안 될 수 있나'를 주제로 열린 27번째 월요 대화와 '반려동물 행복도시 조성'이라는 주제로 열린 28번째 월요대화는 시민의 정책 수요를 기반으로 전남 부서인 외국인주민과와 반려동물복지팀을 신설하는 계기가 됐다.

택시요금 현실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25번째 월요대화에서는 시민, 교통단체, 운수종사자, 시의원,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타운홀 미팅 방식으로 진

행됐으며, 택시업계 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 종합적인 의견수렴을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종합의견은 광주지역 택시 기본요금 인상안 결정에 반영됐다.

이밖에 광주시 스포츠클럽진흥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제정, 복합쇼핑몰 개발 방향 등 월요대화에서 나온 시민들의 의견 다수가 정책에 반영됐다.

올해부터는 월요대화 운영방식을 시민에게 정책·제도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정책동반형'과 정책에 대한 문제·해결 방안 등을 논의하는 '문제해결형'으로 나누고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시민 참여자를 확대했다.

강기정 시장은 "시민과 직접소통, 공직자와의 격의 없는 토론, 갈등 현장에서의 솔직한 대화가 소통의 기본이다. 민심의 옷을 입혀 시민의 삶을 꿰뚫어야만 좋은 정책인 만큼 광주시는 열린 자세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지역신문발전기금'
호남 유일 19년 연속 선정

인터넷 전남일보
www.jnilbo.com

모바일 전남일보
m.jnilbo.com